비아중→비아고 '후폭풍' 4개 초교 학생배치 아우성

미산 · 첨단 · 정암 · 비아초 6학년 410명 졸업 예정
인근 중학교 3→2곳, 원거리 등교 · 과밀학급 우려
"중학교 코 앞에 두고" 학부모 반발…22일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광산지역 고등학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비아중학교를 비아고로 전환키로 하면서 비아중 인근 초등학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진학할 학교가 사라지면서 원거리 통학과 인근 중학교 과밀화 등이 우려되면서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반발에 나섰고,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7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위치한 비아중을 오는 2023년 3월부터 비아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설립 계획안을 승인했다.

시교육청은 고교 개편을 위한 후속 절차로, 비아중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입생을 4학급 규모로 배정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비아고는 2020년 3월부터 5학급 규모로 신입생을 배정해 2021년 10학급, 2022년부터 15학급(남 6학급, 여 9학급, 375명) 규모로 운영된다.

비아고 설립으로 학교 설립과 이설이 쉽지 않은 광산지역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도 기대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그러나 전환 계획이 발표된 후 예기찮은 후유증이 발생했다. 권역 내 중학교 3곳 중 1곳이 사라지면서 인근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산, 첨단, 정암, 비아초 등 인근 4개 학교 졸업예정자(6학년)은 모두 410명으로 3개 중학교에 분산 배치할 경우 적정 규모의 학급 편성과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지만 비아중이 없어질 경우 현재 초 · 중학교 위치상 '밀어내기식 배정' 과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정암초 6학년생 105명(5학급)과 미산초 졸업반 133명(6학급)은 코 앞에 각각 비아중과 월계중을 놓고 1.4㎞ 떨어진 월계중이나 1.5㎞ 거리의 천곡중으로 배정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걸어서 20~30분 걸리는 거리다.

첨단초 역시 5학급 100명이 졸업예정인 가운데 예년 같으면 비아중이나 월계중으로 분산배치될 수 있었으나 비아중 선택지가 없어지면서 1.5㎞ 떨어진 천곡중으로 배정될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비아중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수는 뒷전인 채 '거리 기준' 만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려는 건 일방통행식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미산초 한 학부모는 "집 앞에 중학교를 두고 20~30분 걸어서, 그것도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매일 등하교해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반기겠느냐"며 "의견서를 두 학교에서만 받는 것도 두 학교의 희생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첨단초 6학년생 한 학부모도 "중학교가 없어지면서 바뀌는 상황을 모르쳑하려는 것도,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다"며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불공정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찾아주자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급기야 한 학급에 33~34명의 과밀학급을 감수하고라도 원거리 통학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오는 22일 학부모 합동 설명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과밀학급화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에 중학교 신설 등을 통해 학생 수용 여건과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상황이어서 행정적, 교육적 고민이 깊다.

광주 서부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명쾌한 답이 없다"며 "4개 초등학교를 인근 한 개 중학교(월계중)로 몰아서 배정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OECD지표인 22명은 고사하고 30명도 훌쩍 넘겨 결국 급식, 수업,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의 질과 환경이 줄줄이 나빠질 수 밖에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설립과 전환은 시교육청,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리는 지역교육청이 맡는 이원화 구조여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지역 고등학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비아중학교를 비아고등학교로 전환키로 하면서 비아중 인근 4개 초등학교들이 혼란에 빠졌다.

한근석 도의원, 상수도 미공급지역 해소 촉구

"물 복지 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최근 전남도 환경분야 업무보고에서 "상수도 미 공급지역이 1,739개소에 달한다"며 "누구나 누려야 할 물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현재까지도 22개 시 · 군 1,739개소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16만여 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등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산간지역이 많은 전남 동부권의 10만여 명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지역별 상수도 공급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근석 의원은 "지금의 전남도 상수도 공급계획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며, "도민의 10%가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나서 상수도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남의 '물 복지' 문제를 제기해 온 한 의원은 "상수도 미 공급지역이 대다수 농어촌지역이다"며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전남도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이 문제를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주다운 도시만들기' 본격 가동

광주시가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준 높은 디자인의 건축물과 안전한 도시공간을 통해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광주다운 도시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아트도시 광주정책 추진 ▲총괄건축가 위촉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광주 관문디자인 개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트도시 광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선임하고 지역의 우수 공공건축가 20여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광주만의 독특한 미래 모습의 방향을 제시할 '광주시 도시계획 헌장'도 제정할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동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쿨조끼 배부

광주 동구가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야외근로자 90여명에게 폭염대비물품 전달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온현상이 건강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공일자리 야외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스팩 부착이 가능한 쿨조끼, 아이스머플러, 모자 등을 배부했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연장 등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서구, 제21회 서창 만드리풍년제 개최

광주 서구가 제21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개최한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창 세동마을 들녘에서 개최되는 만드리풍년제는 7월 백중(음력 7월 15일)무렵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김매기를 재현하는 행사다.

만드리 풍년제는 논 주인이 봄 부터 수고한 농사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구는 서창, 발산, 중촌마을 등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기 위해 각종 문화 사료들을 검증해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해 왔다.

이번 행사는 발산마을에서 행사 장소까지 걸어오는 만드리 보존회원들의 행진과 풍물공연으로 시작된다.

남구 "전동침대 등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광주 남구는 17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 수영대회 기념 말바우야시장 페스티벌

광주 북구의 말바우시장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특색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축제가 열린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9일 지역을 대표하는 말바우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2019 말바우야시장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선보이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주최로 진행되는 '2019 말바우야시장 페스티벌'은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로 펼쳐진다.

광산구, 타이어 활용 놀이대회 굴링픽 개최

광주 광산구가 20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타이어로 제작한 놀이기구 '굴링'으로 다양한 경기를 하는 '2019 놀이대회 굴링픽'을 연다.

'굴링픽'은 '굴링'과 '올림픽'의 합성어로 총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 놀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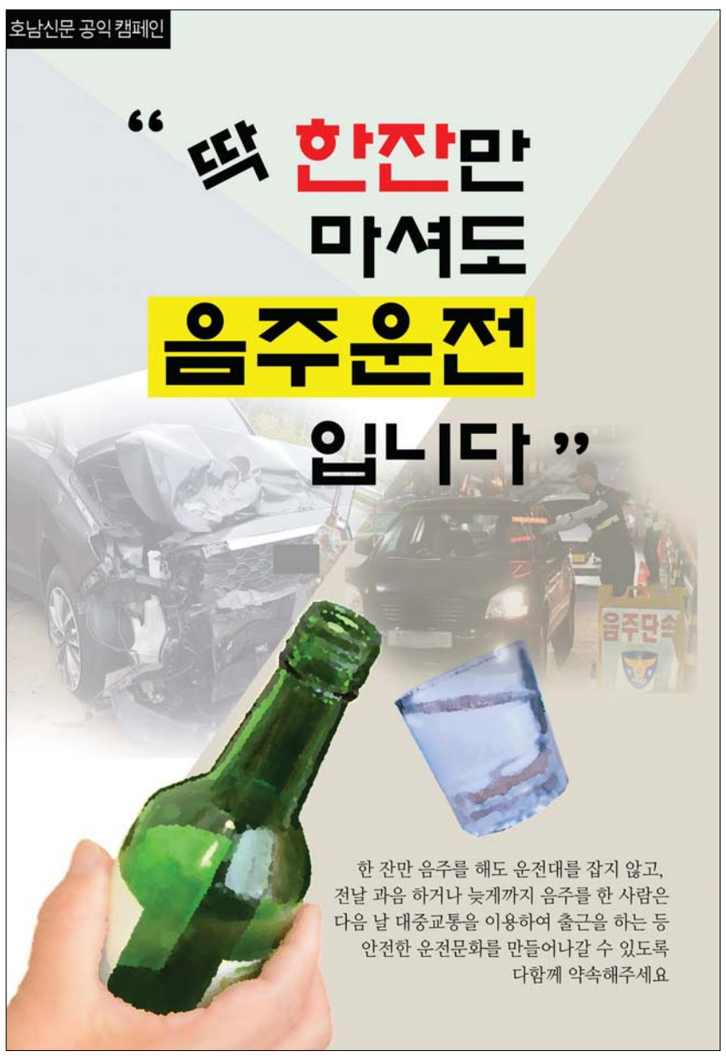
굴링의 역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야호센터' 이호동 상주작가는 청소년들과 함께 한 재활용 예술놀이수업에서 타이어에 바퀴를 단 기구를 만들고, 컬링 · 볼링 등을 접목한 놀이를 창작 ·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에는 굴링을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기도.

올해 지역기업인 금호타이어와 굴링 타이어 제공 등 업무협약을 맺은 광산구는, 청년 멘토 협동조합 '놀자'와 '학교로 굴러간 굴링 교육워크숍' 명칭으로 이 수업 · 놀이를 마지 · 월봉초, 성덕 · 하남중 등 8개 학교 예술놀이 활동에 보급했다.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과 부모 300여명이 굴링픽에 참가할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